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2,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타락, 그리스도와 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타락, 그리스도와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경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존 마호니의 매우 유용한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죄가 기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보았습니다. 마호니의 죄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인간 역사에서 확실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의 창조, 죄의 침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행복한 시작, 비극적인 반향, 그리고 화려한 마무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주의 경이로움과 위엄을 반영하는 세상을 창조하려는 계획으로 시작합니다(계시록 4:11).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으로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 창조물의 면류관은 그의 독점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창세기 1:31에서 매우 좋다고 선언됩니다. 이 낙원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교감하십니다. 죄가 처음 나타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개인적 형상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 창조주는 그의 창조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듯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첫 번째 부부의 죄로, 그는 즉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하는 느리고 지루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최종적인 회복을 향한 새로운 단계마다 그의 개인적 참여가 반영됩니다. 놀라운 개인적 희생과 사랑의 행위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으로 보냅니다.

창조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원수에 승리합니다. 그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의 백성은 육체, 세상, 악마에 대한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창조물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사의 전체 흐름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1:1~4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며, 그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고, 애통함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마호니의 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의 소개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타락 전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죄의 본질을 밝히는 전략은 우리가 성경에서 죄에 대해 아는 것과 타락 후의 우리 자신의 경험을 타락 전 아담에게 투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는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신학자들이 교만과 불신을 넘어 채택한 다른 선택지로는 불안, 이기심, 성욕, 게으름,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이나 교만이 아담의 죄의 근원일까요? 우리는 불신과 교만이 유혹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부인하지 않지만,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의 의심을 반영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끄는 인간의 교만은 아담이 열매를 따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담에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의 침입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창세기 2:17).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유혹 동안,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아담이 교만해져서 불신에 굴복했고, 그 결과 금지된 열매를 따게 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담이 타락 후 불신 상태에 들어갔고, 그것은 최악이며 실제로 열매를 먹기 전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불신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계속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담의 반항적인 행동은 모든 죄의 근원이지 그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아담의 맥락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간적 성격의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타락 이전의 인류의 표현이며, 타락 이전의 아담의 도덕적 정직성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의 지상 생활 내내의 동기와 태도는 그의 죄 없는 본성과 일치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과일을 먹을 생각을 했을 때조차도 죄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언약의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선택했을 때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주친 유혹은 그를 주권적인 창조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가 이미 교만과 불신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는 원래 창조물의 선함과 아담의 원래 의로움입니다. 이레네우스가 주장했듯이 아담이 미성숙하게 창조되었거나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듯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었다면 그의 원래 의로움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담이 의롭고 죄 없는 본성의 맥락에서 의를 추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진짜 저자가 된 듯합니다. 전략적으로, 타락 이전의 격자 또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은 유혹과 죄에 대한 아담의 관점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줍니다. 이해할 만하게도, 사탄은 첫 번째 쌍의 죄 없는 인간적 한계 영역,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욕구에 호소했습니다.

도덕적 정직함은 전지전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창조물에서 형상을 지닌 위치와 모든 선택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독점적 능력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그들의 권리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나머지 창조물과 관련하여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은 특히 금지된 과일에 비추어 창조주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의도는 그 둘이 창조주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일에는 그들이 확실히 추구하도록 창조된 모든 지식의 열쇠와 그들 자신의 신성함으로 가는 문이 들어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에게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신의 금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CS 루이스가 설명했듯이, 아담과 이브는 우주의 어떤 구석에서 신에게 “이건 우리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석은 없습니다. 그들은 명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단지 형용사였고 영원히 그래야만 합니다.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1962. 우리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죄가 반역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그 행동의 편차는 그의 본성에 완전한 편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신으로부터 독립된 우주의 어떤 구석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없는 존재가 왜 죄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를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으로 측정하면 이 접근 방식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격자로서의 그리스도 구현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유혹을 받는 동안 아담의 내면 상태를 확실히 명확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의 본질은 필요한 객관성을 얻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위였으며,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질러졌고, 그 선택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선택은 의로운, 따라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내린 것이었으며, 그에게 불순종은 그의 전적인 인격의 행위였고 그의 도덕적 방향과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이 제안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죄는 반항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기본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요소는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부정적 요소는 명령을 내린 사람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전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은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리가 제안한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은 명시된 명령의 존재이다. 분명히 명령에는 그것을 내린 권위 있는 인물이 있다.

더 나아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할지 불순종할지에 대한 명확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의 본성의 방향은 의로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죄의 본질은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의 움직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험을 위한 특정 맥락과 전적으로 의로운 임명된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순종은 파괴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집중적으로, 전적인 타락.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는 형벌. 언약적 맥락.

신-인간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언약적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적 언약은 임명된 중재자나 대표자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도덕적 시험의 경우, 주님은 두 명의 대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두 아담은 인간 사회의 시작과 끝을 구성합니다. ” 마르게리트 슈스터, *타락과 죄*. 죄인으로서 우리가 된 것 .

사실, 바울은 로마서 5:12와 그 다음 부분에서 대표성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저는 강력히 동의합니다. 대표자로서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상기는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동일시했습니다 . 마태복음 3:15. 예수의 도덕적 시험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8. 이해심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히브리서 2:17, 18. 그의 완전한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리며, 도덕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역은 바울에 의해 표상적이라고 확인됩니다. 로마서 5:18, 19. 다시 말하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심지어 그의 덕스러운 부활, 심지어 그의, 실례합니다, 승리의 부활도 믿는 이들 안에서 실현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22. 이 두 대표자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고 여러 면에서 서로 평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표현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형상을 지닌 자였습니다. 둘 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죄짓는 성향이 없는 의로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둘째, 아담과 그리스도는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의존 속에서 인간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래 설계는 선행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사실, 저는 그것이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지만 요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한 일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언약의 대표자들은 모두 *pose non peccare* , 죄를 지을 수 없음 , 그리고 *pose peccare* , 죄를 지을 수 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관련하여 그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음, 죄를 지을 수 있음.

물론 그 언어는 성 오거스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표 모두 보호관찰이라는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의 주체, 목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시험의 주체, 악마, 목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점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평생 순종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물리적 맥락은 순수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종교적 전통이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는 시기에 왔습니다. 아담은 시험받지 않은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서는 시험받지 않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 peccare , 죄를 지을 수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셨고, 하나님은 유혹을 넘어섰지만, 그는 완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그에게 실제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탐구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죄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리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 렌즈의 적용.

성경에서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죄가 없었으며,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렌즈의 이 세 가지 특징은 그가 시험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가 시험의 모든 척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마주했지만, 훨씬 더 큰 위험과 훨씬 더 강렬한 죄에 직면했습니다. 실패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의 사명을 위태롭게 했을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어 구원의 희망이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택에 의해 완전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또한 본성과 선택에 의해 죄가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가 그의 인간 생명의 희생에 끊임없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10:10. 첫째,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인간 경험의 모든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 성숙이라는 단순한 과정, 히브리서 2:40, 주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 배고픔, 목마름, 피로, 불안, 두려움, 울음, 감기에서 충치, 손으로 일하면서 생기는 물집에 이르기까지 질병이나 부상의 위협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신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배워야 했고(누가복음 2:40, 52) 종종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요한복음 11:34). 그는 종말의 사건에 대해 매우 분명했지만, 자신의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인정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36). 예수께서는 또한 심리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적의 증오와 거부로 인해 발생한 감정과 그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의 불신과 무력한 상태를 견뎌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적 영성 안에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밤을 기도와 예배에 보냈고, 마가복음 1:35, 마태복음 14:23, 제자들과 깊은 영적 진리를 나눌 수 없어서 한탄했습니다, 요한복음 16:12. 이러한 영역

각각은 그의 많은 시험 동안 작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충만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차원적으로 볼 때, 원래 이미지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측면은 합리성, 도덕성, 의지, 감정, 창의성,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 휴즈, 진짜 이미지.

예수께서는 이 구성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셨고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사하지만, 우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기능적 역량입니다.

이것이 운영 허브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이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에베소서 2:1). 하나님을 원하고 의로움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원래의 능력은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시되는 우연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로우셨고, 그 안에서의 형상의 작용은 죄에 대한 증오와 거룩함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심지어 강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원적으로 이것이 형상의 신 지향성이었습니다. 셋째, 형상은 인류에게 창조된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역을 격노하는 폭풍을 멈추고, 물 위를 걷고,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데 행사하셨습니다. 유진 메릴은 또한 물고기 입 속에서 예수가 성전 세금을 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마태복음 17:27). 그는 인용문에서, 여기서도 기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사람(대문자 M)이 바다의 물고기를 지배할 원래 창조 언약의 특권을 호소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인용문 닫기). 저는 기적에 투표하겠지만,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유진 메릴, 구약성경의 성경 신학에서 오경의 신학.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었으므로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태도, 동기, 말, 행동에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인용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29. 그는 당시의 종교적 엘리트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느냐?” 요한복음 8:46. 저는 제 학생들과 제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나쁜 생각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도전의 맥락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찬양하기 위해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의로운 성품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베드로전서 2:22). 죄가 없고 인간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는 본보기라고 불리며, 글이나 그림에서 사용하는 추적 모델은 hapogrammatos 라는 단어입니다 . 인용문은 여러분이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으니,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욕을 받으시면서도 욕으로 대꾸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베드로전서 2:21-23). 예수의 죄 없는 삶은 모든 인간에게 패러다임이 되었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했습니다.

바울과 요한도 그의 죄 없는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21) 그리고 인용하자면,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요한일서 3:5). 그리스도론적 렌즈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었습니다. 예수는 두 가지 뚜렷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인간적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포함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의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분명했고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소유한 것은 그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게 했으며, 그는 죄를 위한 화해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에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대신하여 효과적인 희생을 했습니다.

그의 지상 사역의 다른 측면은 두 본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특하고 마지막 계시로서의 그의 가르침 사역은 인간적 맥락과 신성한 권한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권위와 왕권에 대한 그의 주장은 두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유혹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소개하는 데 주저합니다. 한편으로는, 야고보서 1:13에서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성경적 선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께서 평생 동안 직면하신 유혹이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도전을 경험했을까요? 유혹을 인간 본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육신을 통해 신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도 우리 인간성과 연합했습니다. 성육신은 신성에게 고통, 죽음, 심지어 유혹과 같은 특정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인간 본성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성숙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성숙은 도덕적 시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본성은 그 과정의 각 단계에서 협력했습니다.

사실, 예수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이 시험의 심화에 직면했고,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성장을 촉진하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신으로서, 이러한 선택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궁극성은 그가 내린 모든 선택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아버지의 명예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도덕적 틈에 직면했습니다.

Mahoney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놀라운 협곡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관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대해 이야기한 후, 우리의 죄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든 틈은 어떨까요? 죄의 본질에 대해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쾌감을 느낀 사람의 무한한 도덕적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죄가 그 앞에 있다는 모순일까요? 아마도 새로운 관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우리의 격자로 사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신적 본성과 연합된 죄 없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죄를 구성했을까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회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악마에게 굴복했다면 어떨까요? 그 틈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할 유혹과 가능성에 직면하여 그래도 그렇게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서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궁극에 직면합니다. 광야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긴 사역의 날들까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그의 인간적 의지, 욕망, 목적은 아버지 의 . 과 영원히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신성한 아들의 인용문에서 그가 겪은 일로부터 순종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온전해졌습니다(히브리서 5:8). 존 브라운은 이 과정이 마치 그리스도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가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히 순종과 관련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주로 교육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운 순종이라는 표현은 그가 고통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고 그에 따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께 바친 순종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존 브라운, 히브리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해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많은 좋은 말을 한 청교도 작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시험에서 죄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요소는 그가 활동한 언약이다. 은혜 또는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합의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식이다.

아들은 이 언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부과한 모든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그 핵심이지만, 십자가로 이끈 그의 끊임없는 순종은 그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분에 들어가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칠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비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의 노력에서 규칙은 활동을 정의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사랑, 신뢰, 충성심 위에 세워집니다.

규칙은 구조와 정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행동의 동기로서의 사랑은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한 느낌 이상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동안 아내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규칙과 연결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23. 관계적 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많은 영역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직업, 사역, 학교, 시민권,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규칙은 관계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게임을 하는 것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는 특정한 언약 관계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죄인들의 미래 상태가 보이는 이 궁극적인 맥락에서 위험은 높았고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것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언약을 무효화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언약을 무효화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서 두 번째 요소는 유혹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아버지의 확언을 듣고 영에 의해 광야로 떠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9-12. 마태와 누가가 우리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채워줍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악마는 예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욕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의 미래에 도전했습니다. 러셀 무어의 *Tempted and Tried, Temptation and the Triumph of Christ*, Crossway, 2011과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에게 제시한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특권을 행사하도록 촉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빵, 정점, 국가, 그리고 대안적 선택은 은혜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의 아버지와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각각의 도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와의 언약을 깨뜨릴 가능성이었습니다. 빵의 경우, 그는 자신의 인간적 배고픔에 굴복하여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하는 대신 그 배고픔의 통제 하에 자신을 두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그는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서 아래에 있는 군중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내리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혹은 개인적 확언이나 자존감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였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성경의 약속을 인용했지만, 예수가 굴복했다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 정당화를 아버지가 의도한 굴욕의 길보다 우선시켰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에게 모든 민족을 엿보게 하고, 단순한 예배 행위로 그들을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 악마는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예수의 열망을 이용했습니다.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예수가 성취하기 위해 보내진 구원의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각 경우에, 그리스도에게 죄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그의 의지의 자유로운 행사가 행위를 통해 표현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수의 개인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예수는 실제적인 대안 선택의 자유를 소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자신의 죄 없는 인간 본성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와 모순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독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담. 둘 다 인간 역사에서 독특합니다.

둘 다 특정한 신성한 언약의 맥락에서 행동했고, 둘 다 대표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구원에서 인간의 의지라는 요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10은 이 의지, 즉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기꺼이 하는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영원히 바침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이 뜻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영원히 바침으로써 거룩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 성육신의 관점에서 죄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다른 몇 페이지. 첫째, 이 관점은 죄의 부재가 하나님의 특정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초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죄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아담이나 그리스도가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옮겨간 것은 두 가지 별개의 뚜렷한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명령과 그것을 내린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영구적인 선언입니다. 다른 차원은 독립적인 도덕적 방향을 설정하는 개인적 권리의 주장입니다. 예수의 불순종 행위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 무시이자 도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리와 지위를 무시하고 창조주가 정한 경계를 넘어 창조주에게 도전합니다. 그 장면은 진흙이 도공을 향해 일어나 도공의 권리를 찬탈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로마서 9:21.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경우, 죄는 그가 아버지의 목적을 거역하여 자신의 권위에 따라 행동했을 때만 발생했을 것입니다. 유혹의 맥락에서, 그가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돌을 빵으로 바꾸거나, 그 문제에 대한 다른 초대를 제안했을 때, 그는 진정한 인간이어서 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존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을까요? 죄는 그 행위에서만 발견되고 우리에게 정의됩니다.

둘째, 타락 이후의 관점에서 죄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 동기, 생각, 말, 행위,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모두 성경에서 죄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예수의 관점에서 모든 죄가 생겨나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반항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언약 위반은 모든 죄의 표현을 언약 위반으로 만듭니다. 제 아들은 지역 대학에서 교내 감독으로 일합니다. 그의 책임 중 하나는 농구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는 캠퍼스에서 다른 활동 때문에 스포츠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농구를 하기로 했고, 시설이 잠겨 있어서 침입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교직원 시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마치 그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요.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침입함으로써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의 잘못된 편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진 언약의 잘못된 편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생각, 느낌은 그 언약을 계속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 위반은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본질적으로 모순입니다. 타락 이전의 격자에서 볼 때, 예수는 궁극적인 불일치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를 존경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손에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를 쏘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당신에게 역겹지만,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는 모순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에게는 죄를 지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것으로부터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많으므로, 그것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었다. 예수에게는 죄에 대한 성향을 만들어낸 의지나 도덕적 방향에 약점이 없었다.

요한복음 8장, 이 세상의 왕자가 오고 있고,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할 특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죄입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18, 19. 결론.

도덕적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끔 저를 괴롭히는 단어는 '하지 마세요'입니다.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 죄는 그런 거야. 서둘러서 한 말은 되찾을 수 없어.

한 번 클릭 하면 포르노나 온라인 도박, 불법 처방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은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거나, 배우자를 떠나거나, 처녀성을 주거나, 혹은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버튼을 누르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나 인류의 전후 역사적 맥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내린 모든 결정에는 전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의로웠다. 의로움은 그의 본성의 구성적 특징이었다. 그가 성육신한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의도한 대로 그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의로움은 그에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에게 죄인인 우리가 갖지 못한 도덕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행동할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동일한 행동의 자유를 가졌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의로웠고 창조주와 투명한

관계를 누렸지 만, 반항의 행위로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아담이 도덕적으로 겁쟁이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는 이브처럼 속지 않았습니다(딤후 2:9-15). 그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나 동기의 약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장벽을 넘는 것은 죄입니다. 아담은 돌이킬 수 없는 궁극적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배신 행위는 그 후 우리가 지닌 모든 죄악적인 태도와 반역적인 동기,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불경건한 생각, 말, 행동에서 반복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자 죄 자체의 본질은 반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이며, 이 봉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봉기가 패배하고 반항이 심판을 받고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DA 카슨과 존 머호니의 에세이인 죄 교리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성경을 다루며, 특히 소홀히 다루었던 문제, 즉 원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타락, 그리스도와 죄입니다.